

마을주민 모두가 즐겁게 복숭아를 재배

- 조금씩 밭을 정비하고, 기계작업을 공동으로 -

라쿠라쿠농업운영위원회

야마나시(山梨)현 코우슈우(甲州)시 다이토오(大藤)지구

과수산지에서는 희귀한 집락영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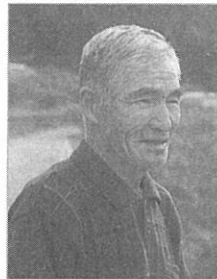
야마나시(山梨)현 코우슈우(甲州)시 다이토오(大藤)지구는 전국 굴지의 복숭아 산지이다. 1950년대에 양잠과 벼농사에서 복숭아로 농업구조를 전환하였다. 선구자의 노력에 의해 기술이 확립되어 고품질의 「다이토오(大藤)복숭아」라는 브랜드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그렇지만 이 지역도 고령화가 진행되어 유희농지가 증가하고 있었다. 경사가 심한 계단식 농지를 그대로 과수원으로 만들어 기계화가 어렵고 작업성이 좋지 않다. 이대로는 산지가 어렵게 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서 생긴 것이 집락영농인 것이다. 그 이름도 「라쿠라쿠농원」이다. 과수산지에서는 희귀하지만 기반정비를 통하여 일하기 쉽도록 과수원을 정비하고, 모두의 힘으로 즐겁게 복숭아재배를 계속하고자하는 조직이다.

기반정비로 다시 태어난 복숭아 밭

시오야마(鹽山)역에서 택시로 산을 향하여 10분 정도 달리면 「라쿠라쿠농원」에 도착한다. 대표인 아키하라(萩原)씨(76세)는 바로 복숭아밭으로 안내를 하였다. 넓고 깨끗하고 복숭아나무가 낮고 압도적인 풍광에 입이 벌어진다.

완만한 경사지의 넓은 과수원에 놀랄 정도로 낮은 복숭아나무가 잘 정렬되어 있다. 과수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높은 장소에 도착하니 아키하라씨는 예



▲ 아키하라씨는 복숭아 재배경력이 40년 이상으로 전에는 농협 복숭아부회장을 역임.

전을 생각하며 말을 하였다.

전에는 밭들이 급경사를 이루고 있었고 과수원을 다니는 길은 좁아서 작은 트럭이 겨우 다닐만하였다. 도로에 인접한 밭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밭은 걸어서 갈수밖에 없었다. 수확하여 무거운 복숭아를 도로까지 걸어서 운반한다는 것

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어렵게 복숭아농사를 계속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과수원이 변화하였다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그만두는 농가도 많았을 것이고, 이 과수원도 1/3정도는 사라졌을 것이다. 정말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회상하였다.

「라쿠라쿠농원」에는 현재 조합원이 18명이 있다. 그중에는 92세인데도 현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77세인 여성분도 계신다고 한다. 원래 전업농은 아키하라씨를 포함하여 4명이었고 나머지는 정년귀농이나 겸업으로 작은 농가가 대부분이었다. 2회에 걸쳐 기반정비사업으로 약 6ha의 복숭아농원이 조성되었다.

낮은 수종과 밀식을 하지 않아 관리가 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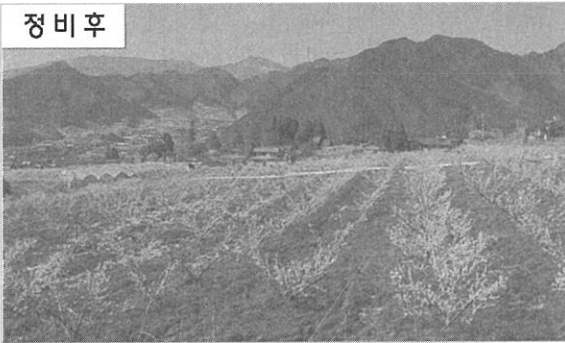
「라쿠라쿠농원」의 라쿠라쿠(樂樂)는 먼저 그 수종의 형태를 표현한 것이다. 모두가 지속적으로 일을

정비 전



▲ 급경사로 계단식의 작은 과수원

정비 후



▲ 정비 후는 넓고 일하기 쉬운 과수원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현의 기술기관과 협력하여 개발한 높이가 2.5m 정도의 수종으로 통일하였다. 손을 뻗으면 대부분 닿는 높이이다.

이전에는 약 5m 전후의 높이 수종이 많아 대부분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해야 하였다. 고령이나 여성들에게는 쉽지 않은 중노동으로 위험한 작업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사다리가 필요 없이 안심하고 즐겁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이 저수종에서는 수량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심는 나무수가 적고 상부의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수량중심이 아니고 노동생산성을 중시하는 시대라고 생각한다. 대응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보았으나 이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고 아키히라씨의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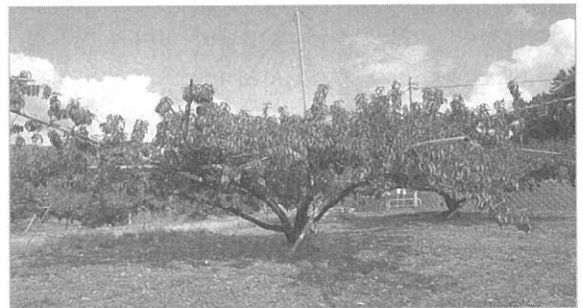
2년 전 보급원의 조사에 의하면 「라쿠라쿠농원」의 평균수확량은 약 1.2톤으로 현 평균 1.5톤보다

약간 적을 뿐이다. 그러나 대상액은 「라쿠라쿠농원」이 약 64만엔으로 현 평균 약 55만엔보다 높게 나왔다. 이것은 품질이 우수하기 때문이다.

「복숭아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확입니다. 수확적기가 며칠 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늦게 수확하면 과숙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즙스용이나 가공용으로 판매할 수밖에 없다. 좋은 복숭아를 생산하여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수확은 한여름의 더운 시기에 하게 된다.」

「라쿠라쿠농원」은 나무사이가 넓은 재배법이므로 경트럭으로 농장의 구석구석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확시기에는 경트럭위에서 바로 박스에 담아 농협의 공선장으로 바로 운반할 수 있다. 이전과 같이 수확한 복숭아를 농장 밖으로 운반하여 다시 트럭에 실어 운반하는 수고를 하지 않으므로 작업성은 매우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현재는 적기에 출하할 수 있게 되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어려운 작업은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다.



▲ 높이 2.5m 정도의 저수종으로 사다리를 사용하지 않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채광성도 좋아 착색도 좋다. 약 30도로 퍼진 주가지는 대나무 등으로 지지하고 끝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는 것이 포인트로 수액의 흐름을 좋게 한다.

◀ 서서 수확을 하는 모습

“라쿠라쿠”의 다른 한 가지는 공동 작업이다. 라쿠라쿠농원은 법인화하지 않고 경영은 기본적으로 별도로 한다. 전정이나 적화(적퇴), 적과, 수확 등 일상적인 관리는 각자가 실시한다. 그렇지만 방제, 퇴비살포, 잡초제거 등 어려운 작업은 공동 작업으로 조합원인 지도자 몇 명이 라쿠라쿠농원 소유의 기계로 일제히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복숭아농사를 계속하고 싶지만 한사람으로는 방제를 할 수없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은 오늘도 오전중에 인근마을에 사는 친척의 농장에 방제를 하고 왔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다고 하기에, 개인적으로 할 수없는 일을 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커버하는 구조를 집락에서 추진함으로써 고령자나 여성농업인이나 겸업이나 지속적으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것이 “집락영농”인 것이다.」

방제나 퇴비살포 등을 부탁하여도 7천엔

지도자의 기계작업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작업속도가 빨라졌다. 예를 들어 방제는 동력분무기를 이용하여 수작업을 하였을 때는 10a에 20분 정도 소요되었지만 SS를 사용하면 10분이 걸리지 않는다. 적기에 일제히 방제를 실시하여 병해충을 방제할 수 있게 되었다. 퇴비는 10a에 3톤을 뿌리는데 수작업으로는 하루 종일 소요되었지만 기계를 사용하면 1시간 정도면 끝이 난다. 잡초제거도 승용을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작업을 완료할 수 있다.

작업효율을 이렇게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기반정비 때문만이 아니고 사실은 복숭아를 심는 방법에서도 많은 요인을 찾을 수 있다. 10a에 15본 정도였던 것을 7~8본 정도로 하고 가격도 12m정도로 많은 여유를 두었다. 때문에 대형기계도 농원의 중심까지 이동하여 효율성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조성 시에 농원의 경계선을 만들지 않았다. 콘크리트나 석단으로 하지 않고 지면에 표시를 하여 장애물이 없다. 어느 집의 농원이라도 직진할

수 있어 보다 효율성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3톤의 퇴비로 년 14회 정도의 소득 그리고 잡초제거의 노임은 전부 10a당 7천엔 정도로 정하고 있다.」

보통 이정도의 작업을 부탁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될까? 라쿠라쿠농원의 지도자그룹의 노임은 시급 1,200엔이지만, 각각의 작업에 걸리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다른 복숭아농가도 놀랄 정도의 적은 비용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비료나 퇴비, 농약 등 생산자재도 모두 공동구입을 원칙을 하고 있어 자재비용이 낮아진다. 그리고 기계도 공동소유임으로 기계비용으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농가는 없다.

협업하는 것이 어려웠다.

작업성을 좋게 하고, 모두가 지속되는 구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고생을 하였다고 한다. 아키하라씨가 1994년 자부담 5%의 보조사업인 기반정비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단식 농지와 같은 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도입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토지개량구와 상담하였으나 그러한 사업은 무리라며 협력을 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기존 과수원을 완전히 개량하여 새롭게 조성한다는 것은 당시에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키하라씨는 집락의 농가를 돌며 기반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 작은 밭을 한곳으로 집약시켜 재분배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농지 매매, 교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 찬성하는 농가도 있지만 반대하는 농가도 있었다.

「선조대대로 내려오는 농지를 양도할 수 없다.」, 「처음 시도하는 사업으로서 완성이 어렵다.」 등등 여론이 많았으나 아키하라씨는 이러한 여론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면서 끈질기게 설득을 하고 협의하였다.

라쿠라쿠농원 (농업운영위원회)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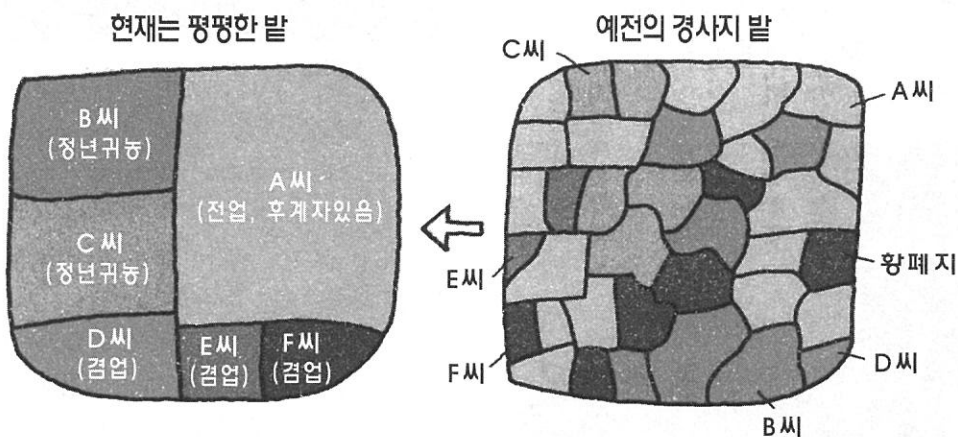
조합원 18호 (4호는 전업농가로 후계자 있음, 나머지는 정년귀농이나 겸업농가로 평균 70세 이상)

면적 약 6ha (조합원 각각의 소유)

소유기계 SS, 제초기 등



<기반정비 이미지>



<활동내용>

- 저위 수종 + 소식재배로 통일
- 지도자에 의한 공동작업
- 비료나 퇴비, 농약 등 공동구입

- 10a 3톤의 퇴비 살포
- 년 14회 정도의 방제
- 잡초제거
- ※ 모든 작업의 임금은 10a 7천엔



농지의 매매가격은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높은 가격에 설정하고, 매입하는 사람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농협의 저금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최종적으로 23명의 지권자(비농가포함)가 13명으로 집약되고 경작을 하고 싶다는 사람은 11명이 되었다. 이 11명으로 1996년에 「라쿠라쿠농업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이념으로 활동을 시작하였다.

- 즐겁게 복숭아농업을 할 수 없으면 산지는 지속되지 않는다.
- 지속성이 높은 과수재배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세대로 연결되는 산지를 형성한다.
- 전업, 겸업, 연령에 상관없이 폭 넓은 핵심 농으로 농지보전을 도모한다.



▲ 보도블럭이 농원의 경계선으로 되어 있어 공동작업 시 장애가 되지 않음.

이 기본이념에 있는 즐거운 복숭아농업에서 “라쿠라쿠농원”이 만들어진 것이다.

기반정비사업은 중산간지 종합정비사업을 활용하여 1999년 가을부터 다음해 봄까지 4.4ha를 정비하였다. 이것이 첫 번째 라쿠라쿠농원이다. 그 후 2009년 말 종합정비사업을 활용하여 3.2ha를 정비하였고, 새롭게 참가한 사람도 있어 조합원은 현재 18명이 되었다.

별도의 장소에서 묘목을 육성하여 미수입 기간을 단축



▲ 전정강습회 모습

기반정비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은 지금까지 생활을 지탱해주었던 복숭아나무를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새롭게 심는 복숭아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미수입 기간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기반정비를 시작하기 3년 전부터 별도의 장소에 육묘를 시작하였다. 현의 유희농지 활용촉진사업을 활용하여 조합원 3명이 약 1ha의 유희지를 정비하여 1,000본 정도의 묘목을 재배하였다.

그리고 조성이 끝나고 묘목을 이식할 때는 “계획 밀식”을 하였다. 어린나무는 수량이 적으므로 당초에는 지금의 4배의 나무를 이식하여 수량을 확보하고, 그 후 조금씩 간벌하고 4년째에는 지금의 나무수와 같게 하고자 하였다. 덕분에 큰 묘목을 이식한 2년째부터 많은 수량을 수확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라쿠라쿠농원」은 본궤도에 올라갈 수 있었다.

후계자가 4명 탄생

2년 전 아키히라씨의 집에는 40대의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후계자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른 조합원의 아들 3명도 후계자로 돌아왔다.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아들들이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라쿠라쿠농원」을 운영하면서 아키하라씨는 과수 지대 집락영농의 형태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후계자는 각각의 농가에 없어도 집락의 후계자로서 명명만 있으면 모두가 지속하는 농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농지는 자신의 고정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생산자재라고 생각하면 집락영농은 추진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이 황폐지를 감소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기는 결코 서로가 통하는 사람들이 모인 조직

이 아닙니다. 움직이지 않는 농지를 안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항도 있습니다.」라고 아키하라씨는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모두가 납득하고 즐겁게 복숭아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것이 아키하라씨는 무엇보다 기쁘다.

「라쿠라쿠농원」의 노력이 계기가 되어, 지금 현재의 2개소에서 같은 기반정비를 통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한다. ㉟

〈편집자 주 : 본 원고는 일본 현대농업 2013년 1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한 것임〉

49년 역사의 자랑스러운 농업기술회보! 회원여러분의 정성과 참여를...



기나긴 역사의 소용돌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농민의 정신혁명, 농업의 기술혁명, 농촌의 생활혁명”의 깃발을 휘날리며 꿋꿋하게 맥을 이어온 49년 전통의 농업기술회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회원여러분의 끈임 없는 성원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기 속에서도 굳건한 농심으로 농촌현장에서 농업을 지키는 회원여러분처럼, 회보 발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업정책에 대한 여론수렴, 도·농녹색교류, 신영농기술, 세계농업동향, 회원 여러분의 각종 소식 등에 역점을 두고 회보발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일이나 농촌현장의 희노애락 어떠한 내용도 좋습니다.
회보에 많은 참여를...**

회원여러분! 시내물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룹니다. 정성과 농심이 가득한 후원금을...



- 회원의 목소리 : 매달 25일까지
이메일 kafa794@chol.com, 팩스 02)792-6972
서울 용산구 이촌로 223-13 (이촌동 301-87) (우)140-906
- 후원금 송금처 :
농 협 : 1394-01-000536 제일은행 : 327-20-016036
예 금 주 : (사)전국농업기술자협회
(송금자의 성명, 전화번호를 본회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